진각국사 혜심 스님, 차를 읊다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⑭ 고려시대 차 문화



강진 백련사 전경. 백련사에서 수행했던 고려후기 승려 진정국사가 지은 〈호산국〉을 통해 당시 스님들이 서로 차를 구하고 선물했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눌(知訥 · 1158~1210)의 제자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慧諶 1178~1234)은 기존의 선사상을 답습하지 않고 종합 발전시킨 선사상을 제창하였고 정토사상을 적극 수행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간화선을 강조했던 그는 수선사의 제2대 사주로 교세를 확장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향리층이나 독서층 자제들이 대거 불교계에 투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고려 후기에도 차문화를 주도한 건 사원과 승려들이었다. 그러므로 그 또한 차를 마시며 수행했기 때문에 여러 편의 다시(茶詩)를 남길 수 있었는데, 이는 13세기 차문화뿐 아니라 사원 승려들의 음다(飮茶) 풍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더구나 그가 고려 후기 대표적인 다승(茶僧)의 면모를 갖춘 수행자였다는 점에서도 그의 차에 대한 노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라 하겠다.

그렇다면 그가 불교계에 투신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인연은 무엇일까. 그와 불교의 인연은 남다른 면모가 있었으니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읜 그가 출가를 원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 1201년 사미시에 합격, 태학으로 들어갔던 전력도 특별하다. 그다음 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선사로 지눌을 찾아가 삭발염의(削髮染衣)한 인연사도 그렇다.

1210년 지눌이 열반한 후 그가 수선사로 돌아갔는데, 사방의 학자와 도인, 속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법당이 좁았다는 것에서도 그가 범상치 않은 수행력을 지닌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소식을 들은 강종(康宗)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수선사를 증축하게 하고 자주 중사(中使)를 보내 공사를 독려하였다. 그리고 만수가사(滿繡袈裟) 한 벌과 마납(磨衲) 한 벌, 그리고 차(茶) · 향(香) · 보병(寶甁) 등을 내렸다고 한다. 왕이 그에게 법을 구하기에 〈심요(心要)〉를 지어 올렸다는 사실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조계산제2세고단속사주지수선사주증시진각국사(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이규보의 진각국사 비명(碑銘)에는 13세기 최고의 권신이었던 최우(崔瑀 · ?~1249)가 진각국사의 수행 풍모를 듣고 성의를 보이려 하였고 그의 두 아들을 보내 진각국사를 모시게 하고, 국사의 생활 도구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당시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물품인 차와 향 등을 때마다 보냈다고 하니 당시 왕과 최우가 보내준 차는 당시 유행했던 백차(白茶)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그는 시문에도 능했던 수행자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태학에 있을 때 지은 시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는 고려 후기 문인 진화(陳澕)의 〈매호유고-제목을 잃다(失題)〉의 협주(夾註)에 "뽕 따는 아낙네 든 광주리 봄빛을 가득 담고(臂筐桑女盛春色) / 고기 잡는 노인 쓴 삿갓 빗소리 담고 가네.(頂笠蓑翁戴雨聲)"라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문집 〈무의자전집〉에 수록된 다시(茶詩)는 그의 다풍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니 그의 시 몇 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차의 덕성은 좋은 차와 이에 알맞은 물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차를 즐기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 그 깊이를 더한다. 그러므로 좋은 물을 고르는 안목은 차를 즐기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다. 그러므로 다사(茶事)에 밝았던 진각국사는 찻물에 대한 안목도 높았다. 이는 〈찻물 샘(茶泉)〉에 "오래된 이끼 속으로 소나무 뿌리 뻗었고(松根去古蘚)/돌구멍으로 싱그러운 물이 솟아오르네.(石眼迸靈泉)"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고송(古松)의 뿌리가 뻗어 있고 오래된 이끼가 자라는 곳이라면 맑고 청정한 자연조건을 두루 갖춘 곳임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런 조건을 갖춘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면 차의 색향기미를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물이다. 이런 물을 찾아 차를 즐긴 진솔한 연유는 무엇일까. 답은 진각국사의 〈차와 정해문(呈解問)을 보내온 것에 답하여(惠茶兼呈解見答之)〉에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밤새도록 참선으로 피곤해진 밤에
(久坐成勞永夜中)
차 달이며 무궁한 은혜를 느끼네
(煮茶偏感惠無窮)
한 잔의 차에 혼미함이 다 걷히니
(一盃卷却昏雲盡)
온몸에 맑은 (차의) 기운 퍼지자 모든 시름이 사라지네(徹骨淸寒萬慮空)

그렇다면 그에게 차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순천 송광사 진각국사 진영.

진각국사, 고려 후기 대표적인 다승
장좌불와시 혼침 극복 위해 차 애용
승려 · 문인, 차 선물하는 풍습 있어

정해문(呈解問)이란 깨달음의 이치에 관한 담론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게 차를 보낸 인물은 어느 사찰의 승려로 진각국사와 깊이 교유했던 수행자로 추정된다.

그가 차를 즐긴 연유는 바로 장좌불와(長坐不臥)로 인한 피로와 잠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차가 불교와 융합된 이유였다. 그러니 차를 보낸 사람의 은혜를 "차 달이며 무궁한 은혜를 느끼네(煮茶偏感惠無窮)"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리라.

한편 그는 차를 마신 후, 온몸으로 퍼지는 맑고 시원한 차의 기운은 바로 세상의 온갖 시름과 혼미함을 걷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차의 실효성을 말한 것으로 차를 마시는 이로움과 즐거움은 이런 것이다. 그가 오랜 세월 차를 즐기며 수행했던 흔적은 오봉산 전물암(轉物庵)에서 수행할 때 지은 〈우거전물암(寓居轉物菴)〉에 "이 빠진 다완 다리 부러진 차 솥으로(缺脣椀折脚鐺口)/ 차를 다리며 하루를 보내네(煮粥煎茶聊遣日)"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가 빠진 찻잔은 가루차를 선호했던 고려 후기에 주로 사용했던 찻그릇인데, 이를 오래도록 사용하여 그의 손때가 묻었을 것이며 이도 빠진 것이리라. 이 또한 그의 검박하고 진솔한 수행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데, 얼마나 오래도록 사용했으면 이가 빠지고 다리가 부러졌겠는가. 다완과 차솥은 차를 다릴 때 사용되는 최소한의 기물(器物)로, 이가 빠진 다완과 다리가 부러진 차솥은 그의 걸림 없는 차생활의 일면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가 차를 마시며 수행하던 오봉산은 구례에 위치한 산으로, 전물암은 진각국사가 지눌의 제자가 되기 전인 1203년~1209년 즈음에 머물던 사찰로 짐작된다.

그가 활약하던 고려 후기에는 차를 구하기 위한 걸명(乞茗)도 유행한 듯한데, 이는 〈대흔 스님이 차를 얻으러 와서 시를 청하기에(大昏上人因丐茶求詩)〉에서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너무 깜깜하면 혼침에 들까 두렵나니
(大昏昏處恐成眠)
향기로운 차를 자주자주 끓여야하리
(須要香茶數數煎)
그날의 향엄은 본래 꿈속에 있으니
(當日香嚴原睡夢)
신통을 전하는 일, 네가 도와 전하라
(神通分付汝相傳)

윗글은 진각국사가 자신을 찾아온 대흔 스님에게 써준 시로, 대흔(大昏)이라는 승려의 법명을 시구의 첫 글자로 놓아 유쾌한 희언(戱言)으로 삼았다. 대흔은 매우 깜깜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 "너무 깜깜하면 혼침에 들까 두렵다"라고 한 것이다. 혼침(昏沈)은 졸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차를 자주자주 끓여 마심으로써 졸음을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전한 것이다. 당시 차를 구하고 선물하는 풍습은 승려 사이에서나 문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진정국사 천책(眞靜國師天頙 · 1206~?)의 〈호산록(湖山錄)〉에 실려 있는 〈선사께서 차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謝禪師惠茶)〉라는 시에서도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귀한 차는 몽정산의 봉우리에서 딴 것으로
(貴茗承蒙嶺)
이름난 물, 혜산천을 길었으니(名泉汲惠山)
졸음을 깨끗이 물리칠 수 있고(掃魔能却睡)
손님과는 한가함 누릴 수 있으리(對客更圖閑)
털구멍으론 이슬 같은 땀, 송골송골 맺히고
(甘露津毛孔)
겨드랑이엔 맑은 바람 살랑이네(淸風鼓腋間)
어찌 신령한 약을 마신(何須飮靈藥)
연후에야 동안을 유지할까(然後駐童顔)

진정국사는 백련사에서 수행했던 고려 후기 승려로, 원묘국사의 제자이다. 백련사의 4대 조사(祖師)로 추앙받았다. 시문에 뛰어났던 그는 차를 즐긴 수행자로, 말년에 용혈사(龍穴寺)에서 여러 제자를 배출하였는데, 그 또한 진각국사처럼 문과에 급제한 후 출가한 인물이다.

윗글에서 그가 말한 몽정차(蒙頂茶)는 몽정산 정상에서 생산하는 명차이다. 명차가 나는 몽정산은 사천성 명산현과 아안현 사이에 있고 당나라 때부터 황실에 차를 공납했던 차 산지이다. 특히 몽정차는 약성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초의선사(1786~1866)의 〈동다송〉에도 "육안차는 맛이 좋고 몽정차는 약성이 좋다"고 했다. 물론 진정국사가 활약했던 시기에도 몽정차가 고려에 소개되어 왕실 귀족과 승려들이 즐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혜산천은 육우가 천하의 제2천으로 명명한 이래 가장 귀한 찻물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진정국사는 혜산천처럼 가장 좋은 물을 길어와 차를 다렸음을 드러낸다. 이 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최고급 차와 차의 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을 얻었다면 그의 차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차를 마심으로써 졸음을 물리칠 수 있고 귀한 손님과 탈속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란 최상승(最上乘)의 아회(雅會)다. 더구나 차를 마시자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인다든가 땀이 송골송골 맺힌 경지를 무엇과 비견하랴. 차를 마신 후 맑고 경쾌해진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